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아…괜찮을까?
- YahooFinance: 미 물가 상승 속도, 임금 보다 빨라진다

[중동 위기]
- Bloomberg: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이란 출발 선박 나포도 검토
- Bloomberg: 미국의 흐르무즈 봉쇄가 의미하는 바는?
- CNBC: 트럼프 “중국이 이란 군비 지원하면 50% 관세 부과” 위협

[오일]
- Bloomberg: OPEC 생산량, 사상 크게 감소
- YahooFinance: 유가 1백 불 다시 오르면서 가스값 인상 가능성도

[미국 취업]
- Bloomberg: 대졸 졸업 자녀 취업 지원 코칭에 최고 5만불까지

[주택]
- Bloomberg: 미 기존 주택 판매 9개월 만에 최저…가격 상승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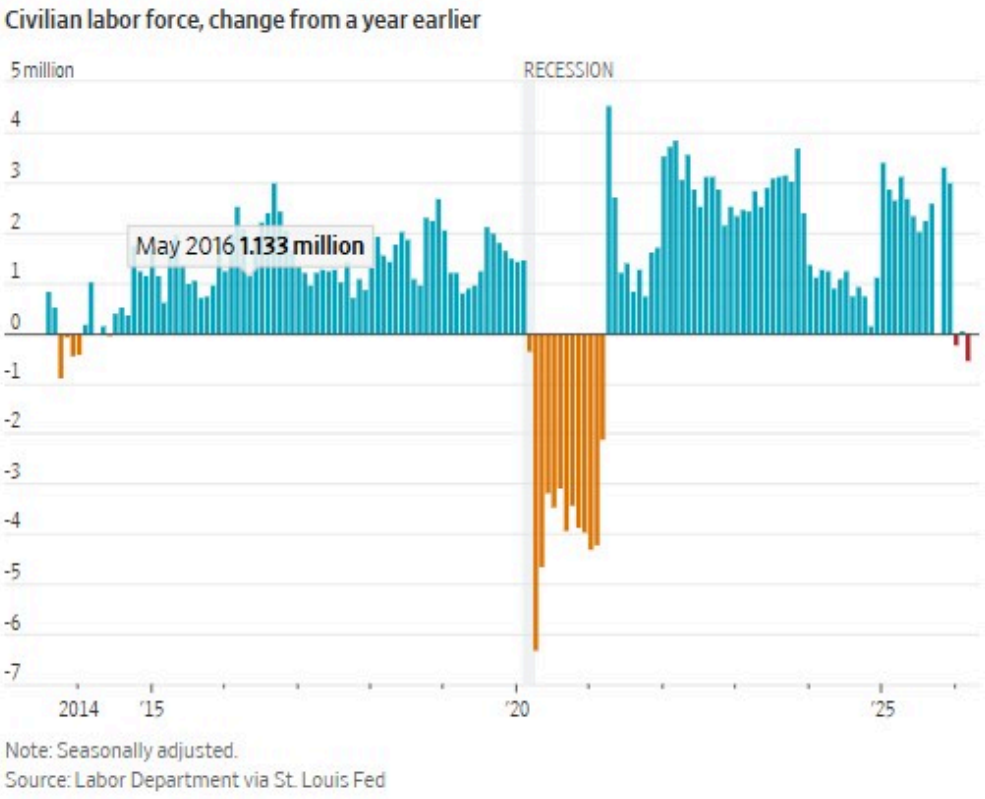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맥도날드, 에너지 드링크도 메뉴에 추가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The Economy Is Growing, Jobs Aren’t. Why That Might Be OK.
미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아…괜찮을까?

미 GDP와 신규 고용 사이의 이례적인 괴리 현상은, 이민 둔화와 노동 인구 감소를 노동자 생산성 향상이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도 이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2025년에 GDP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고용 증가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사람은 줄었지만, 자동화·AI 덕분에 한 사람이 더 많이 생산해서 경제는 성장했다
3월까지 1년 동안 노동력은 55만 4천 명 감소했다. 비농업 부문에서 시간당 생산량은 자동화에 힘입어 지난해 2.1% 증가했다.



기사

YahooFinance: Prices are beginning to rise faster than Americans' wages
미 물가 상승 속도, 임금 보다 빨라진다

- 미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보다 빠르게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지난달 물가는 전년 대비 3.3% 상승해, 3월 연간 임금 상승률 3.5%에 근접했다.
- 하지만 월간으로 보면 2~3월 사이 물가가 0.9% 급등하면서 실질 임금은 상대적으로 줄어, 휘발유 가격 상승 여파로 근로자들의 시간당 순임금은 전월보다 0.07달러 줄었다.
- Navy Federal Credit Unio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Heather Long은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이 이미 미국인들의 임금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잠식하고 있다. 4월이나 5월에는 물가가 임금 상승률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US-Iran Truce Mostly Holds Before Blockade Set to Begin
미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이란 출발 선박 나포도 검토

- 미국은 오늘 월요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란 관련 해상 항로에 대해 봉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란 항구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란 출발 선박을 나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이란은 이를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페르시아만 내 항구들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 현재 휴전은 레바논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한편, 긴장 고조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했다

기사

Bloomberg: What We Know About Trump's Plan to Blockade Hormuz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가 의미하는 바는?

- 왜 미국은 이런 조치를 하려는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사실상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왔기에 미국은 이란의 핵심 자금원인 석유 수출을 막아 정권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다.
- 봉쇄 조치가 이란에 의미하는 바는? 이란 경제는 석유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봉쇄가 도면 외화 수입이 크게 줄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다.
- 봉쇄 조치가 미국에 의미하는 바는? 미국은 중동 공급 차질을 자국 에너지 산업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동시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 봉쇄 조치가 아시아 국가들에 의미하는 바는? 아시아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호르무즈 통제가 강화될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사

CNBC: Trump threatens 50% tariffs on China as report suggests plans for arms shipment to Iran
트럼프 "중국이 이란 군비 지원하면 50% 관세 부과" 위협

- 트럼프는 중국이 이란에 공중 방어 시스템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어제 일요일 중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 중국이 이란 전쟁 지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다.
- 하지만 중국의 무기 수송 보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응하겠다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 역시 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제로 실행될지는 불분명하다.

기사

[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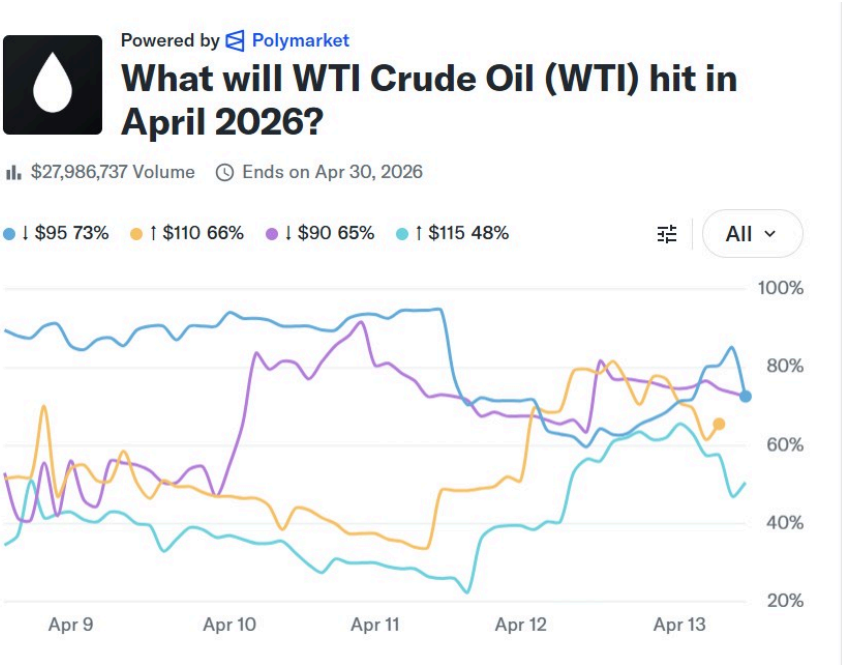
Bloomberg: OPEC Output Suffers Record Plunge as Iran War Throttles Exports
OPEC 생산량, 사상 크게 감소

- OPEC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달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중동 위기로 주요 회원국들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 이번 분쟁은 페르시아만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막아버리면서, 산유국들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제트유, 디젤,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 또한 OPEC은 2분기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하루 50만 배럴 낮췄지만, 하반기 증가 전망이 이를 상쇄하면서 연간 기준 수요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다.

기사

YahooFinance: Gas prices will probably 'return to climbing' as oil surges back above $100
유가 1백 불 다시 오르면서 가스값 인상 가능성도

- 유가가 오늘 월요일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 AAA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12달러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약 0.53달러 오른 상태다.
- 이 같은 가격 급등은 양국 협상이 결렬된 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예상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전까지는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추가 상승하고, 디젤도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

[미국 취업]

Bloomberg: Anxious Parents Are Spending Upwards of $50,000 to Land Their Kid a Job
대졸 졸업 자녀 취업 지원 코칭에 최고 5만불까지

-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들은 대학생 자녀가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코치 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 대학생 대상 커리어 코칭 서비스는 시간당 수백 달러에 달하며, 종합 패키지는 3,000~10,000달러 수준이고, 일부 업체는 집중 지원 프로그램에 3만 달러 이상을 받기도 한다.
- 이들 사설 코치는 면접 연습, 지원 전략 수립, 인턴십 및 이력서 작성 지원 등을 제공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사

[주택]

Bloomberg: US Existing-Home Sales Fall to Nine-Month Low as Prices Rise
미 기존 주택 판매 9개월 만에 최저…가격 상승 탓

- 3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가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봄철 성수기를 앞둔 주택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 계약 기준 거래는 연율 3백98만 건으로 2월보다 3.6% 감소했으며, 블룸버그 조사 전망치도 밑돌았다.
- 이번 보고서는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보여주는데, 분쟁 이후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구입 부담이 더 커졌고, 이에 따라 가장 활발한 봄철 시장 회복도 위협받고 있다.
- 또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2026년 기존주택 판매 증가 전망을 기존 14%에서 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윤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판매 전망을 낮췄다”라고 말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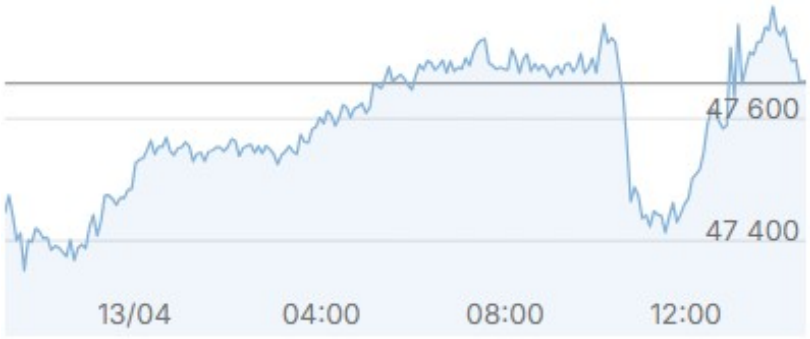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McDonald’s to Add Energy Drinks, Crafted Sodas to Menus
맥도날드, 에너지 드링크도 메뉴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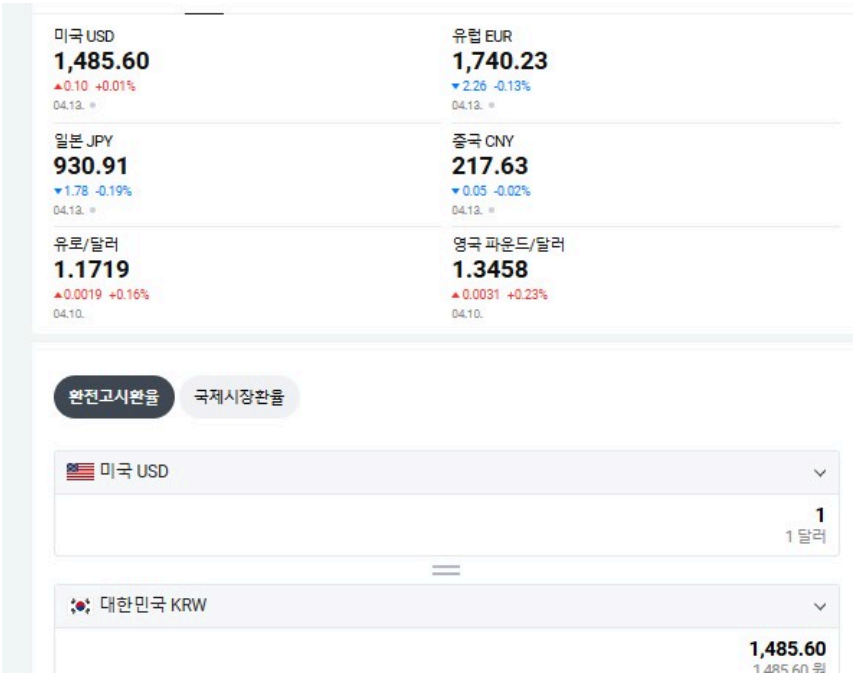
- 맥도날드는 미국 매장에서 레드불 드래건 베리 에너지 드링크를 포함한 에너지 음료와 특수 탄산음료를 판매할 예정이다.
- ‘Dirty Dr Pepper’ 등을 포함한 신제품 음료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에너지 음료는 8월부터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된다.
- 맥도날드는 에너지 음료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매장 음료 기기에 투자한 가맹점주들에게 높은 수익 마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7,668.70	-247.6	-0.52%
US 500	6,821.60	+4.8	+0.07%
Dow Jones	47,650.61	-265.96	-0.56%
S&P 500	6,820.24	+3.35	+0.05%
Nasdaq	22,974.77	+71.88	+0.31%
S&P 500 VIX	19.92	+0.69	+3.59%
Dollar Index	98.582	+0.143	+0.15%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